대학원 산업인공지능학과 ‘어프렌티스 프로젝트’

**강의 소감문**

|  |  |  |  |
| --- | --- | --- | --- |
| 이름 | 유대건 | 학번 | 2021254013 |

|  |  |
| --- | --- |
| 강연 제목 | 논문 작성법 |
| 강사명 | 서보석 교수님 |
| 강연 일자 | 2021/10/28 |

|  |
| --- |
| *1. 강의 요약 및 소감*  “논문 작성법”, 강의 제목만 보더라도 이번 주제는 아주 흥미로운 강의라는 것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까지 들었던 다른 강의보다 아주 실용적인 강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본 학과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 논문을 대체하여 프로젝트로 제출하도록 요청을 받아 논문을 쓰게 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잘 기억해 두면 분명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시작과 함께 맨 처음 등장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바로 ‘특정 주제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 연구와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대한 학술적 글’ 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당연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한편으로는 쉽지 않은 글을 써야하는 수고를 겪어야 쓸 수 있겠다는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정의에 나오는 특정 주제라는 말에서부터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내가 가진 능력으로 조금은 수월하게 독창적 연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선 강의에서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내기보다 기존에 존재하는 주제에 살을 덧붙이거나 또는 빼내어 단순한 형태로 만드는 것도 모방이나 표절이 아닌 새로운 것이라는 내용이 머리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쉬운 듯 생각되면서 어려운 내용을 작성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머리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세세하게 이어졌습니다.  정의에 나와있는 내용을 조금 더 간결하게 단어로 정리하면 신규성, 독창성, 표절금지 이런 단어들로 대표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표절금지 라는 단어에 맞게 표절을 위반하지 않고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에서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서 머리속에 스쳐 지나간 기존 주제에 가감승제 하면 주제 선정과 연구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과 함께 논문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저자를 작성해야 하는데 연구를 하여 내용을 작성한 한 사람만 기입할 수도 있고 그 외에 공동저자를 기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또한 혼자만 열심히 골머리를 썩지 않을 수 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그 결과물에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의로 인해 안도감은 금방 사라지고 진지한 마음만 남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에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성된 논문이 단순히 학위를 얻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잘 작성된 논문일 경우 많은 분야에서 이 논문을 인용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바로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논문이 하나의 형태로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형태의 논문이 있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연구논문, 소고, 리뷰논문, 기술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종류가 있다는 것과 함께 논문을 이용하여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논문을 구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해 두면 좋겠지만 당장 논문을 작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많은 해야 할 일들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목, 요약, 서론, 관련연구, 제안 방법, 구현 및 실험, 결론, 사사, 참고문헌 이 들어간다는 것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해 두어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실제 논문 작성 시 이 기억하는 틀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작성법 또는 내용을 참고하여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지식도 쌓이게 되었습니다. |
| *2. 개선사항*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주제의 강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형식적이며 구체적으로 되어있어 다소 흥미롭지는 않지만 활용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흥미를 상쇄시켜 집중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